

# 그의 쇼핑리스트엔 숨은 욕망이 담겨있다

## 소비의 역사

설혜심 지음



우리는 수많은 '상품'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물건도 있지만, 막상 사두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저 물건을 내가 왜 사들인 걸까" 생각이 빠지기도 한다.

'소비'는 우리 삶과 불가분의 관계다. 현대인은 '소비하는 인간'이라는 뜻의 '호모 콘수무스(Homo Consumus)'라 불리기도 한다.

'지도 만드는 사람', '운천의 문화사', '서양의 관상학, 그 긴 그림자' 등을 펴낸 설혜심 연세대 사학과 교수가 이번엔 현대인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소비'에 초점을 맞춘 '소비의 역사'를 펴냈다.

저자에 따르면 소비는 물건을 사거나 쓰는 행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이미지나 상징 등의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한다. 물질이나 서비스를 욕망하는 순간부터 그것을 구매하고 즐기며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과정에는 상상력, 관계 맺기, 구별 짓기, 도덕, 이데올로기, 자원의 보존과 낭비 등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다.

책은 '욕망하다'(굿즈), '유혹하다'(세일즈), '소비하다'(컨슈머), '확장하다'(마켓), '거부하다'(보이콧) 5가지 장으로 나눠 논의를 펼쳐나간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숱한 물건을 갖고 싶어했다.



1870~1900년경에 제작·배포된 상여사의 트레이드마크 세트 '세계 곳곳의 상여 제품들' 가운데 'Korea' 편.

백색 신화를 전파한 최초의 식민주의 상품 비누, 미지의 세계를 소유하려는 유럽의 욕망을 보여주는 중국도

자기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 물건을 파는 방법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세계적인 재봉틀 회사인 미국의 '싱어사'는 각국에 재봉틀을 팔았다. 우리나라에 재봉틀이 등장한 게 1877년이고, 싱어사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한 게 1907년이다. '싱어사'가 세계 최고의 재봉틀 회사로 발돋움한 건 바로 '할부제'를 시작한 덕이었다.

방문판매의 상징 중 하나인 미국의 화장품 아줌마 '에이본 레이디'는 전세계에서 600만명이 활동하며 전체 매출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 등장한 우편주문, 카달로그, 백화점, 쇼핑몰 등 근대적 판매 방식과 공간 역시 '소비의 시대' 주역들이다. 1851년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개최된 수정공민국 박람회는 런던인구의 3배가 넘는 600만명이 몰려들었다.

제품에 대한 평가와 불매운동, 소비의 역사 이면에 숨겨진 저항과 해방 연대 역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설탕' 1파운드를 소비할 때마다 사람의 살 2온스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18세기 영국 평론가 윌리엄 폭스의 선언은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설탕을 거부, 노예제의 경제적 근간을 흔들었다. 먹거리 같은 일상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정치적 도덕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윤리적 소비의 출발로 꼽히는 활동이다.

저자는 소비는 삶의 편의성을 넘어 본질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둘러싼 행위이며 사람들은 그 행위들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타내려한다고 결론 짓는다.

200여쪽에 달하는 사진과 그림 자료들이 소비 문화 현장을 실감나게 보여준다.

〈휴머니스트·2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상상병 환자=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극작가 몰리에르의 대표 희곡 3편을 묶었다. 수록작은 귀족이 되고 싶어하는 부르주아의 어리석음을 그리며 대희극의 성과와 발레 희극의 축제적 성격을 접목시킨 '부르주아 귀족', 부조리한 결혼 관습에 맞서 자유로운 연애결혼이 승리하는 과정을 그린 '스까뽕의 간계', 당대의학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며 청춘과 사랑을 예전하는 희극 여정의 종착지 '상상병 환자'로 세 작품 모두 몰리에르의 예술적 탐색을 종합한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창비·1만3000원〉

▲다시 루신에게 길을 묻다=루신은 중국 문학의 또 다른 형식으로 잡문(雜文)이라는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그는 잡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진중하고 날카로운 비판정신과 함께 유쾌함과 풍자정신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후 현대 중국의 문학과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저자는 루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형상 분석을 통해 루신이 의도했던 탈식민주의와 풍자정신을 도출한다.

〈휴밀발·1만8000원〉

▲사랑은 탄생하라=시인 이원은 1992년 '세계의 문학'으로 등단했다. '애플 스토어-밤낮-소름-큐브-밤낮없어'라는 제목으로 이어지는 다섯 개 장에 시 61편을 묶었다. 삶에 내재한 죽음과 고독의 심연을 외면 없이 직시하되, 미완의 역동적인 에너지로 충만한 아이들의 천진함에 기대



어 현실의 조건과 물질적 속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유연한 상상과 자립적 이미지를 그려내 보인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군대 골라가기=이 책은 의무병, 직업군인, 전환·대체복무 등 어떤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를 알려 주는 군 입대 가이드다. 또 군인이 되고 싶은 여성들에게 여군이 되는 방법도 안내한다.

'특수부대' 코너도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별 고민 없이 이미 입대한 현역병들도 군대에서 새로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군대에 무작정 끌려가지 않고 '골라 가는 함'을 키워보자.

〈문학과지성사·8000원〉

# 하버드대 교수가 전하는 감정 관리법

## 감정이라는 무기

수전 데이비드 지음, 이경식 옮김



자신만이 소유한 핵심 가치를 찾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의과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수전 데이비드가 펴낸 '감정이라는 무기'는 나를 자극하는 수만 가지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심리 솔루션이다. 아마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책답게 세계 저명인사들의 추천을 받았다.

에일대 총장이자 정서지능 연구 창시자인 피터 셀러비는 "수전 데이비드는 우리의 생각, 감정, 동기가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고 파괴할 수 있는지를 파헤친 선구자"라며 "매력적이고 실용적인 지혜를 결합하여 사람들이 인생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평한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삶에 얽매어 있다고 본다. 과거 트라우마나 유쾌하지 못한 공상에 사

로잡혀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감정이 자신을 찌르는 무기가 되는 이유는 그 때문일 터다.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를 강요하는 행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감정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에는 감정의 가치를 약화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잠재우면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이 제시돼 있다. 부정적인 감정 패턴 알아차리기, 자아수용을 실천하기, 장기적인 인생의 목표에 다가서기 등 감정의 민첩성을 기르는 단계 등이 기록돼 있다.

일테면 이런 내용이다. "언제든 부러질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비로소 인생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상처를 동반하는 사랑과 사랑을 동반하는 상처에 자기 자신을 활짝 열라. 마찬가지로, 실패를 동반하는 성공과 성공을 동반한 실패에 자기 자신을 활짝 열라."

〈북하우스·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어린이·청소년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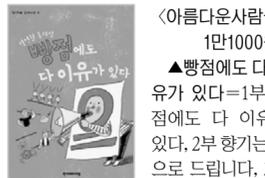
▲일기 먹는 일기장=일기장이 자꾸 일기를 먹어서 속상한 지민이와 결말하면 공이 사라지는 동진이는 마음이 잘 맞는 친구다. 둘은 어느 날 지구 반대편 음악 잔치에 초대받는다.

모든 것이 반대로 이뤄지는 그곳에선 가장 엉터리로 연주하는 참가자가 일등이다. 두 친구는 어떤 화음을 만들어 낼까? 꿈을 가지고 싶거나 꿈을 이룰 용기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주는 책이다.

〈사계절·9800원〉

▲가면학교="너희가 꼭 아인슈타인이냐 베토벤이 될 필요는 없단다. 이미 아인슈타인과 베토벤은 있으니까. 우리는 너 다음에 내가 필요하단다. 이 넓은 세상에서 너는 오직 하나뿐이기 때문이야.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발견이란다."

이 책은 "꿈을 가진다는 것은 주위의 시선이나 바람을 채우는 것이나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아름다운사람들·1만1000원〉

▲뽕점에도 다 이유가 있다=1부 뽕점에도 다 이유가 있다. 2부 항기는 텅으로 드립니다. 3부 개구리밥이 개명 신

정을 했다. 4부 할머니는 좋겠네 등 모두 54편의 작품을 4부로 나누어 실었다. 시험에서 뽕점 맞은 이유를 줄줄이 대고도 모자라 다음에 잘 치면 된다고 큰소리치는 표제작 '뽕점에도 다 이유가 있다'에서 보듯 발랄한 일탈의 순간들이 동시집 전반에 잘 포착돼있다.

〈한겨레아이들·9000원〉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법원 앞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 5억6천500만)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라가치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병원적합, 골프장, 대형식당, 최적합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